

# IT서비스 해외 블루오션 시장 및 진출전략

## 목 차

1. 들어가며
2. 우리 IT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해외진출 동향
3. IT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블루오션 시장
4. IT서비스 해외진출 정부 지원방안

이진휘 팀장  
IT서비스사업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1. 들어가며

지금은 세계경제가 서비스화·소프트화가 촉진되고 있고 “지식”과 “서비스”가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시대로 지식 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IT서비스 산업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GDP 비중 성장률이 높아가는 추세<sup>1)</sup>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IT서비스 산업은 국내 정보화의 성숙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SI 중심의 내수시장이 포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으로 신규시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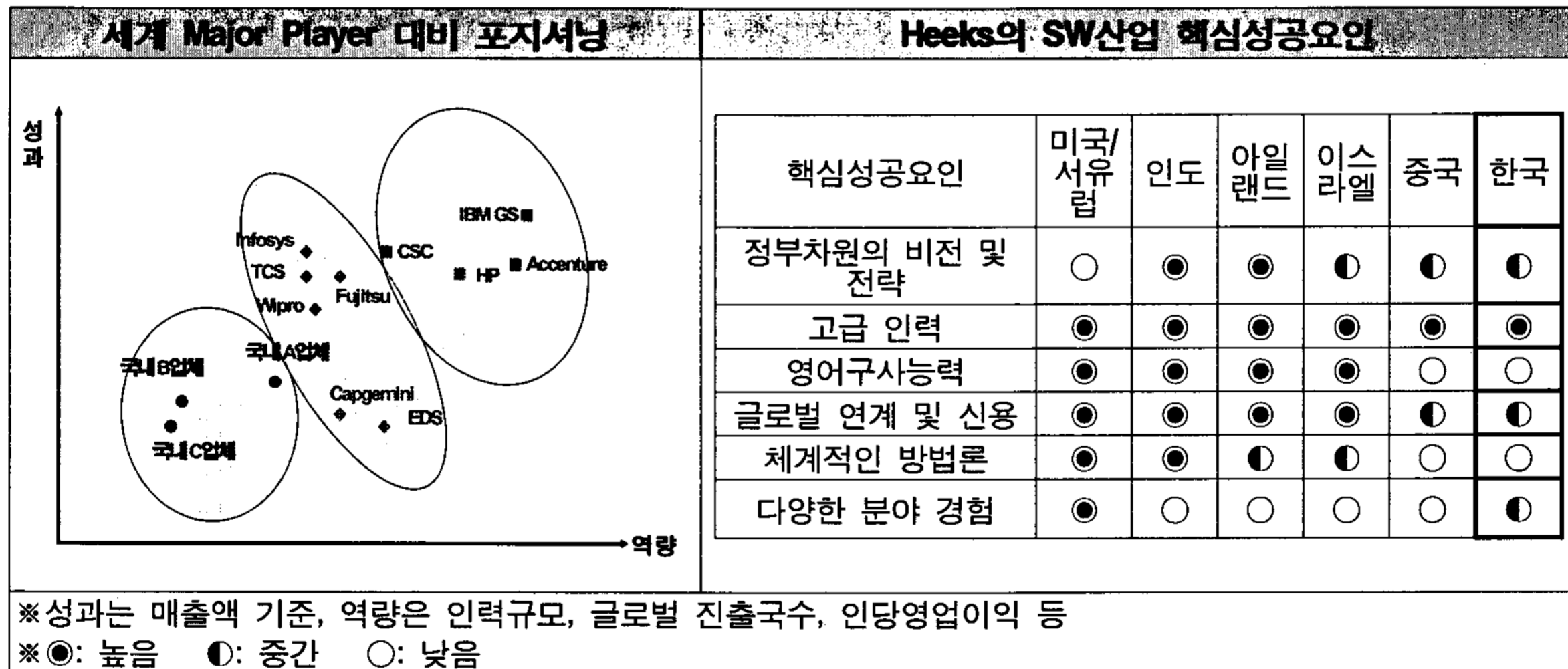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 IT서비스 기업도 전자정부, 제조업의 경쟁력 등 국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Reference Site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우리 IT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시 블루오션 시장(전자정부 중심)이 어디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우리 IT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해외진출 동향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통신 서비스사업자, HWSW벤더 등)들은 컨설팅 기업의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Player로 진입<sup>2)</sup>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주도기업은 미국중심의 Global기업 및 현지시장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Global기업의 현지지사, 현지시장에 밝아 영업력이 강한 현지기업 및 SW수출 강국인 인도기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sup>

반면에 우리 IT서비스 기업들은 기업정보화 및 전자정부시장에 약 3,000여개의 기업들이 내수시장의 88.4%를 점유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관계사 내부거래에 의한 시장 독과점(60%<sup>4)</sup>), 불합리한 거래 관행 등으로 전문화가 미흡하며 수익 악화 등 악순환 구조로 해외 진출이 저조하고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여 인력 등 규모, IT서비스 기술력(세계38위, 싱가포르 1위, IMD2004)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 우리 IT서비스 기업 경쟁력 >



IT서비스 수출은 4.3억불('04년)로 전체 SW수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해외이전으로 발생하는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 비중(SM : System Management,

1)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는 '90년 61%에서 '03년 68%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36.8%('02), 영국 34.6%('02) (OECD '05) 우리나라는 약 25% 수준  
 2) IBM은 제품사업(HW, SW)에서 탈피하여 통합솔루션과 컨설팅 서비스에 주력하기 위하여 컨설팅 업체인 PwC를 인수합병('02), BT(British Telecom)는 IT서비스업체인 Syntegra Group 인수로 통신관련 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개발서비스 제공  
 3) 글로벌 TOP10 기업들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이상인 반면, TOP10 이하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1% 미만, 세계 IT서비스 시장은 약 50년의 사업경험이 있는 미국의 IBM, EDS, CSC, Lockheed Martin, 액센츄어 등 Global기업이 주도  
 4) 대기업 계열사 의존도('04) : SKC&C(69%), 포스데이타(67%), 삼성SDS(66%), LG CNS(40%)

그룹사의 관계사 지원 등이 차지하여 IT컨설팅 등의 고부가 가치 서비스 비중은 현저히 낮은 것('04년 3%)을 보여주고 있다.

< IT서비스 수출현황 >

(단위: \$)

항목	세부 항목	2003년		2004년		비고
1.IT서비스	컨설팅	9,154	2.3%	7,149	3%	
	SI	279,071	69.9%	294,049	56%	
	아웃소싱(SM)	110,816	27.8%	168,317	39%	
	소계	399,041(67%)	100%	432,053(52%)	100%	
2.패키지 SW		75,688(13%)		113,170(14%)		
3.디지털콘텐츠		118,447(20%)		285,168(34%)		
합 계		593,176(100%)		830,373(100%)		

(자료 : SW수출실적(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4.12))

그리고 우리 IT서비스 기업의 수주 성공요인은 시장요구(IT서비스 사업자 선정요소)사항 중에서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업종지식), 가격, 서비스 만족도, 차관 등 자금부문의 연계 등으로 특히, 캄보디아 행정 전산망 프로젝트는 국내 구축경험을 통한 정부간 협력(EDCF : 경제협력자금 활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 우리 IT서비스의 주요 수주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국가	수주액(\$k)	기업명	수주 성공요인
중앙,농협은행 정보화	베트남 파키스탄	50,000	HIT	- HIT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 확보 - 현지 유력인사를 Agent로 확보하여 정보우위 확보 - 국내 Reference를 재사용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자동차 생산관리	말레이시아	9,145	LGCNS	-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으로 신뢰도 확보 - 기술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 유연한 고객 대응 서비스
스트리트 영상쇼	미국	14,000		- 자금준비, 중소기업과 컨소시움 구성 - LGCNS의 PM 능력 입증 관련 영업력 -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철강생산라인	중국,인도	3,649	POSDATA	- 세계 최강의 철강회사 Reference 확보 - 제철소 운영전반에 대한 Domain Knowledge
행정정보화	캄보디아	20,000	한국컴퓨터통신	- 국내 전자정부 경험을 활용한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확보 가능 - 국내 EDCF연계를 통한 사업기회 창출
터미널관리	스페인 이스라엘	3,958	TSB	- 컨테이너터미널 분야 구축 Reference -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AFC	중국	20,000	SDS	- 국내 Reference 홍보를 통한 프로젝트 이행능력에 대한 신뢰도 확보 가능 - 발주처 고위층 인사에 대한 밀착영업으로 정보력 우위 확보
무선인터넷 플랫폼	대만 이스라엘	40,000	SK텔레콤	-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무선인터넷 환경 - Reference를 방문을 통한 기술력 입증 -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지원 가능성

\* SW 해외수출실적(2004.1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따라서 우리 IT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은 대기업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공공부문 시장 개척활동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은 특화된 솔루션(스포츠, 방송, 금융, 항만) 등을 기반으로 틈새시장을 KT, SKT 등 통신사는 무선망 설계 등 통신 분야에 진출을 시도하는 등 국내시장에서 축적한 업종지식(Business Domain

Knowledge)을 경쟁력으로 Global 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니치 및 타겟시장에 진출을 추진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IT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은, 해외 Reference 부재 및 마케팅 능력의 미흡, 초기 투자 비용에 따른 Risk Taking 부담으로 해외진출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즉, 수주가 된다는 보장이 없이 사업별로 1~2억의 사전 영업비용 투자부담으로 진출의지가 저하<sup>5)</sup>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부문의 해외시장 진출에서 정부부처의 정보화경험과 대 개도국 지원 정부차관, 대기업의 브랜드력과 Project Manager 능력,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요소기술로 구성된 범정부적, 민관협업 진출 전략과 중소·대기업 상생 동반진출 유도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3. IT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블루오션 시장

세계 IT서비스 시장은 '04년 약 4,715억불로 연평균 6.5%성장하여 '07년에는 5,498억 규모로 추정<sup>6)</sup>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약 89%가 북미(43%), 서유럽(33%), 일본(13%)이 차지하고 있는 수치상 거대시장임에는 확실하다.<sup>7)</sup>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은 선도기업들의 경쟁우위에 우리기업에게 접근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아 많은 기업이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우리기업의 현실에서 집중해야 할 블루오션 시장(타겟시장)의 설정 및 집중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블루오션 시장 선정을 위해서는 해외 IT서비스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데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아래와 같다.

첫째, 해외 정보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요구사항 파악 등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조직적인 접근이 없을 경우 투자 리스크(사전 영업비용)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기업들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부처까지는 현지기업, Agent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지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도국의 경우 각 부처보다 상위의 조직(국가개발위원회,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재무부 등)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어 어느 부처와 사업진행을 협의하는 도중에 사업이 중단,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동안 상당한 투자부문에 대해 보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사업의 성공여부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도국이 한정된 자체 예산으로 정보화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아 국제개발은행(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B, ADB, IDB, AfDB 등)과 선진국의 무상원조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정보 입수 시 자금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사업 우선순위가 정부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가?(통상 Blue Book에서 파악 가능) 등 정보파악이 중요하다.

셋째, Open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외 정부와 비 공식적으로 개척한 커뮤니케이션 통로(Agent, 현지기업)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

5) 수주까지 최소 2~3년 사전 영업기간이 필요하고 해당국내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사업수주가 곤란

6) 자료 : Gartner Dataquest 2004

7) 분야별로 금융(23%), 공공(18%), 통신(11%) 등이 차지, Gartner Dataquest 2004

확히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며 동시에 손익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전영업 활동 중의 하나이다. 확실한 정보원 또는 조력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개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넷째, 현지기업과의 협력으로 기술이전 등을 통한 유지보수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정부도 정보화를 추진하며 국내 SW기업들을 육성코자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100% 전체를 우리기업이 제공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진다는 솔루션은 시간, 공간상의 제약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특성 이외에 해외 정부부처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되는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은 그 자체로 신뢰성이 입증되어 있고 더욱이 정책경험에 대한 협력을 기술(솔루션)보다 우선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외사업의 어려운 점, 고려할 점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이 집중해야 할 시장은 3가지의 중요한 팩터(정부의 정책경험, 자금, 기업의 기술요소)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현지점에서 블루오션 시장을 도출 할 수 있겠다.

< IT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블루오션 시장 >



첫째,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차관(Softloan)을 연계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등이 지원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한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EDCF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기금의 총액을 향후 3년간 현재 수준의 2배로 증액('05~'09년간 1조9천억원)할 예정이며 정보통신 부문을 최우선 지원분야로 확정·발표하였다. '06년에는 대략 3,800억 규모의 차관이 승인될 것으로 추정되며 세부적인 타겟시장은 아래와 같다.

< 우리정부 제공 차관연계 타겟시장 >

지역	국가	'06년	전자정부	시장 특성(우리와 경험가능성 중심)
----	----	------	------	---------------------



		EDCF(억)	지수	
<b>합 계</b>		<b>3,150</b>		
<b>아시아</b>	<b>소계</b>	<b>2,100</b>		
	인니 (최우선국가)	1,000억/년간 (5개과제)	96	-아세안 최대인구(218백만명), 경제규모(GNI 2,480억불) -개도국 중 우리와 교역 2위('04년 100억불), 투자규모(3위, 45억불), 아세안 최대 경험 파트너 -아시아 유일의 OPEC회원국, ASEAN의장국
	베트남	1,000억/년간	105	-아세안 인구3위(82백만), 경제규모 6위(450억불), 년평균 7% 고성장하며 성장잠재력 높음 -우리 무역흑자 2위(26억불), 교역규모(7위,40억불) -개도국 투자누계 3위('04월말 30억불), '04년 투자(2위, 3.6억불)
	캄보디아	400억/4년	41	-아세안 최저소득국(1인당GNI 320불) -WB,ADB(7억불,'92~'04년)의 메콩강유역 개발원조 증대 -'09년까지 4개년간 400억원(2건) 수준 지원
	기타	라오스 미얀마 기타	147 129 128	-라오스, 미얀마는 경험 등 여건 반영 -싱가폴, 브루나이, 태국. 말련 등은 해외투자 금융활용
<b>서남아</b>	<b>소계</b>	<b>500억</b>		
	방글라데시	200억/년	162	-서남아 최빈국(440불), 인구(1.4억)으로 인도적 지원 -인도와 FTA추진 등 경험 잠재력 큼
	파키스탄	200억/년	136	-600불, 1.5억명, DLSEHWJR 지원 증가
	스리랑카	400억/4년	94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요충지, 인도와 FTA 추진 등 역내시장에서 핵심국가
	네팔 기타		124	-네팔은 최빈국 차원에서 지원 -인도는 민간투자, 금융위주로 경험 추진을 지원
<b>동북아</b>	<b>소계</b>	-		
	중국	-	57	-중국의 대 개도국 원조 연간 7억불로 추정(경쟁국) -1,280불, 13억, 지방정부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
	몽골	-	93	-590불, 3백만, 우리와 교역, 투자 증가 -경협차원에서 적절하고 유연하게 지원
<b>중남미</b>	<b>소계</b>	<b>300억</b>		
	과테말라	600억/4년	100	-경제규모면에서 SICA(중미통합체제) 8개국의 25% -중미지역 아국 교역(6.1억불), 무역흑자(4.9억불) 1위(488억불), 해외투 자 2위(1.5억불) -DR-CAFTA(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중미 거 점국가
	콜롬비아	600억/4년	54	-IDB차관사업 등 중남미 진출 거점국가 -미국의 무관세 정책에 따라 대미 우회수출전진기지
<b>중동/ 아프리카</b>	<b>소계</b>	<b>250억</b>		
	예멘	400억/4년	154	-석유(세계 수출량 19위), 인프라 구축시장 성장, 최빈국(570불)
	앙골라	600억/4년	158	-아프리카 석유 3위,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개발수요 증대
<b>CIS</b>	<b>소계</b>	-		-석유, 자원 등 풍부, 우리의 잠재 경험상대국 -카자흐(65), 우즈베크(79),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 안국

둘째, 우리정부가 MDB에 제공한 신탁기금(Trust Fund)을 활용한 타당성조사 등 컨설팅사업 참여를 통해 본 사업을 수주하는 시장이다. '05년 9월 우리나라는 남미개발은행(IDB) 가입을 마지막으로

로 5개 MDB회원국이 되었으며 각 국제개발은행에 신탁기금 또는 정보통신 신탁기금(ICT Trust Fund)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에는 컨설팅 프로젝트 입찰시 우리기업간 경쟁(Tied조건, AfDB)시장과 국제입찰(Untied조건, IDB, ADB 등)시장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겠다.

<국제개발기구(MDB)별 신탁기금 현황>

개발기구	WB	IDB	ADB	EBRD	AfDB
설치연도	1993년	2005년	2005년	1993년	1999년
총 금액(만불)	516	1,400	2,000	60	200
잔여금액(만불)	178	1,400	2,000	21	190
합계('06 ~ '08), 추정	178	5,000	2,000	21	190

※ 국제개발은행(MDB)을 통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05.8.17, 재정경제부)

셋째, 우리 정부부처, 특히 외교부가 지원하는 국제협력자금(무상원조)의 정보화 프로젝트 발굴과 연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소액규모(평균 \$500,000 규모/사업, 총 40억 규모로 추정)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부처별로 소액규모의 국제협력 사업을 활용하는 시장이다.

넷째는 향후에는 반드시 개척해야 할 거대시장으로 해외 정부의 자체자금 또는 우리기업이 컨설팅 단계에 참여하지 않는 정보화 시장으로 전체 해외 공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해야 할 시장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분야에서 국제시장에서 사례를 확보하고 역량을 확충하여 Global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진입할 수 있겠다.

#### 4. 정부의 IT서비스 해외진출 정부 지원방안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구축 6대 전략의 하나로 “전자정부 사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내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전자정부 해외진출(24대 과제)을 선정하여 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추진 해 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컨설팅(F/S: Feasibility Study)사업을 정부간 협력으로 추진하여 국제차관(EDCF, World Bank, ADB 등) 신청 및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IT서비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해당국에 Reference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Launch Pad)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 20여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해 오고 있다.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방안으로 국내SI기업과 공동으로 수원국 수요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F/S)를 실시하고 우리정부가 제공하는 EDCF자금과의 연계(과제별 F/S단계 지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IT서비스산업 구성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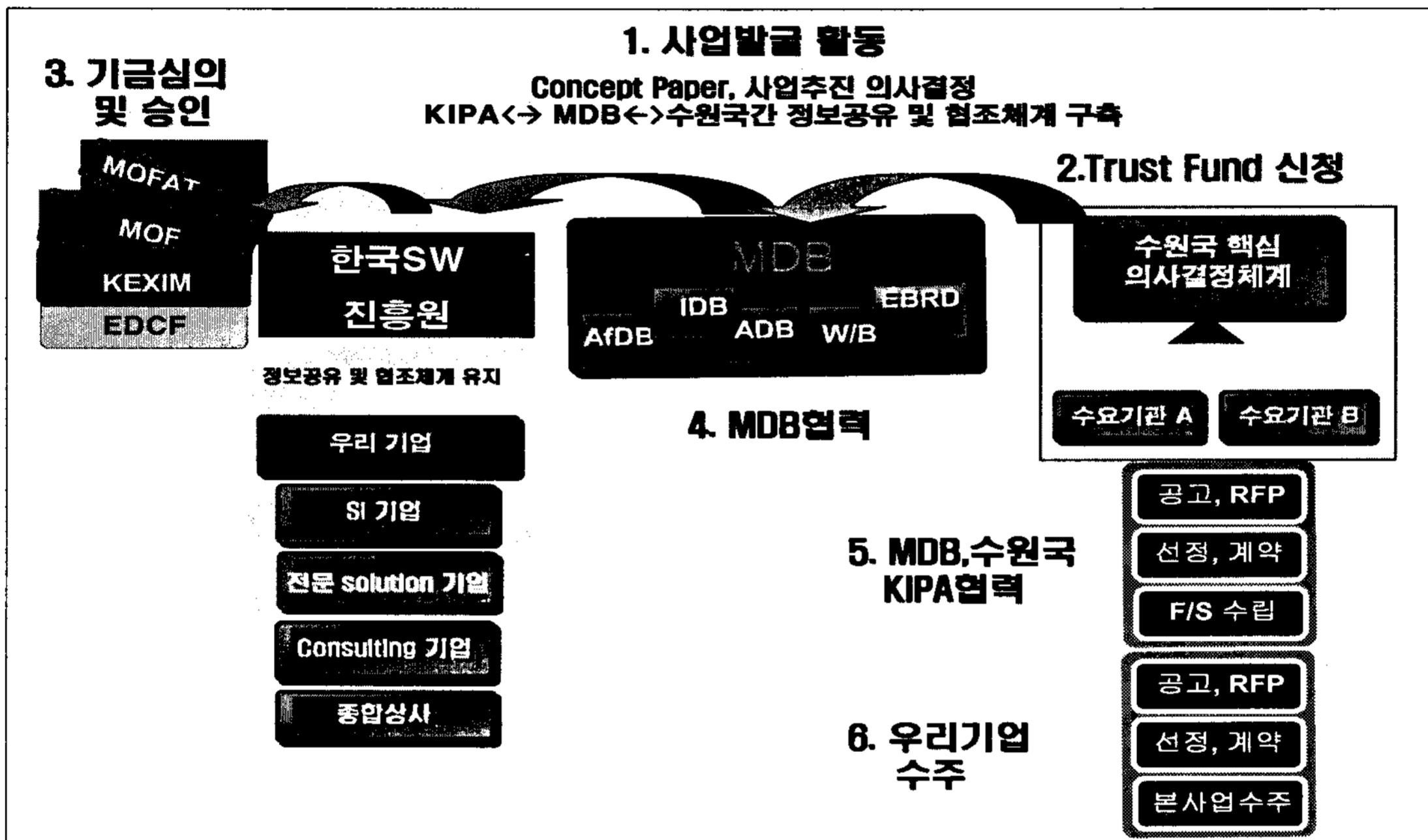
	M/P수립	과제별 F/S	파일럿사업	본 사업
내용	Road Map for informatization	우선순위 과제	시범사업	From ISP/BPR, to implementati on
비용	\$1M, 60M/M	\$300K, 20M/M	\$1M ~\$3M	1.5 ~ 2 year(\$20M)
예산소스	Grant/ICT Trust Fund	Grant/ICT Trust Fund	Grant (\$1M/project)	Credit assistance

F/S작성 및 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30만 달러,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이는 우리 Grant 및 EDCF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05년 10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중앙은행 전산화, 콜롬비아 인터넷정보화, 우즈베키스탄 우정정보화 등 총 18건의 F/S를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7건의 F/S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미니카(지자체정보화), 파나마(사법형사)에 연불금융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테말라(교육정보화), 몽골(주민등록), 베트남(조달정보화) 등 총 5건에 대한 차관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미얀마의 공무원인사 정보화는 우리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 되었다.

'06년 중점적으로 국제개발은행(MDB)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할 예정으로 협력사업 세부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MDB 협력사업 개념도>



우선적으로 우리 IT서비스기업의 역량, 경험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MDB와 수원국에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MDB와 공동으로 수원국 전자정부 수요사업을 파악하고 국제개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탁기금을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국제개발은행이 지원코자 하는 타겟 국가를 선별하여 국제개발은행과의 Joint Mission 참여 또는 우리나라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그리고 국내IT기업을 포함하는 공동수주지원단 파견 등으로 해외정부의 해당분야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전자정부 성공사례세미나, F/S 프로젝트 발굴 활동 등으로 궁극적으로 MDB가 발주하는 정보화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수주토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전자정부 수요부문의 M/P수립 및 과제별 F/S사업 추진 시 우리정부가 MDB에 제공한 정보화 신탁기금(ICT Trust Fund)<sup>8)</sup>을 활용한 MDB와 공동사업 추진 및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F/S사업의 참가는 수요사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함으로써 본사업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F/S를 통하여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사업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본사업 수주활동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금 확보 방안으로 우리정부가 MDB등에 제공한 우리의 ICT Trust Fund 활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 Trust Fund와 공동연계를 통해 우리기업의 MDB조달 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은행과의 공동사업 개발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8) 미주개발은행(IDB)에 지식협력신탁기금(5천만불, '05.4), 아시아개발은행(ADB)에 e-아세안 펀드(1천만불, '06년) 설치예정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지원 부문에 있어 여러 고려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첫째, IT서비스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범 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정부 부문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책경험을 보유한 우리 정부부처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유사 정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들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간에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축하여 해당 분과위별 해외진출 전략(재정경제부의 금융허브전략 소위원회와 협력 등)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예정이다.

즉, 금융허브 전략과 연계한 참여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KOICA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우리 금융 자본 인프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실례이다. 또한 '06년 1월에 발표된 우리 조달정보화 정책진출 촉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조달청,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간 협력약정(MOU) 체결 등으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IT 서비스해외진출 주요 정부부처 주요기능 >**

관련부처	IT 서비스해외진출관련 역할	세부사항
주무부처	정부간협력창구, 정책·제도 경험의 전수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등
정통부	IT 서비스수출관련 정부지원 총괄, 사전타당성조사·초청연수, 인터넷엑세스센터 운영, 홍보, 자금연계 등	KIPA, KADO, NCA, IITA
외교부	시범(Pilot) 사업에 무상원조 확대, 협력과제의 외교 의제화	공관, KOICA
재경부, 산자부	EDCF 자금연계, 수출금융, 수출지원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그리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공관들에게 우리 IT서비스의 강점과 진출 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해외시장 정보입수 및 사업성공의 Facilitator로서의 기능을 강화 시켜야 한다.

둘째, IT서비스기업의 해외 정보화사업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진출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화컨설팅(F/S) 지원을 고도화 하기위해 F/S사업의 발굴·사업자 선정·수행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F/S실적의 DAC<sup>9)</sup>통계자료 등록을 통해 해외정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SW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EDCF연계, 수출금융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차관과 국제개발은행 자금과의 혼합금융 협력, 로얄티 또는 런닝개런티 방식의 SW수출대금 결제관행을 반영한 신설 SW수출보험제도('05. 9)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활용 등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금융상품의 발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 홍보를 통한 우리 정보통신의 우수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Wibro, DMB 등 검증된 솔루션들의 해외진출 성과가 가시화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9)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총괄하는 OECD 산하기구로 각국의 개발 원조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